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학학자 양성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27대 이화여자대 학장의 첫번째 편지
- 이화여자대학교센터(EVQC)개소 1주년기념
- 졸업30주년, 53주년, '모교 방문의 날'
-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대학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 이화의료원scl과 아민이환경건강클리닉(CHECK) 및 환경건강연구센터 (IESEH) 설립 1주년 심포지엄 개최
- 2023학년도 1학기 ESAC 특강 개최
- 제 2기 학생홍보단 이의랑 발대식 개최

05 학생소식

- 2023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우수 논문 시상식
- 동아리소식
- 이화 의대 멘토-멘티, 설레이미 돈드함으로
- 브라운의대 해외선택실습 다녀오다
- 해외실습 교환학생을 만나다
- 융합형 의사와학자 양성사업 선정, 환경의학교실 이상실 박사과정생 인터뷰

09 기획기사

- 의료혁신과 여성벤처란?
- ㈜에프앤가이드, '의과대학 장학기금' 1억 5천만원 기부
- 제 1회 Ewha-FnGuide 우수인재 장학금 수여식
- '치음'을 말거름으로 꽃피울 이화

11 동문소식

- 임선영 동문, 이화의대 제24대 동창회장 취임
-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동문, 대한내분비 외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 이진경 동문, 한국원자력 의학원 신입 원장 임명
- 이화의대동창회, 자립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12 교수소식

- 신임교원 인터뷰 홍소희 교수
- 퇴임교원 인터뷰 이미애, 정구용 교수
- 김영주교수 美 생식학회장상 수상
- 방은경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조영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김한수교수, 강덕희교수 2023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 신경과학교실 송태진 교수
-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보건산업진흥원과제 선정

17 신임, 퇴임, 보직 교수 명단

18 의과대학 기금안내

대학소식



27대 이화여대 학장의 첫번째 편지 “For Future Ready Ewha Medicine”



안녕하세요? 26대에 이어 27대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장으로 봉사하게 된 하은희입니다. 2021년 8월에 처음 학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이화여대를 아시아 최고의 의대로 만들겠다는 염원이 있었기에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이화여대 구성원 및 동문 선생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에는 이화여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다음 세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의대 연구의 선진화와 Physician scientist(융합의과학자) 양성을 위하여, 의예과 때부터 학생 연구를 지원하여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교수님들의 집단연구를 활성화하여 대형연구비수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기본 인프라가 되는 대학원/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학술저널인 이화의대지(EMU, The Ewha Medical Journal)를 특성화된 최고 의학저널로 만들어 이화여대의 연구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둘째, 국내 최고 수준의 6년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대 학제 개편으로 의예과와 의학과 과정을 통합하여, 의과대학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화의대 교육의 본질과 철학, 사회적 책임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학교육은 직업 전문성을 넘어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성이란 보건 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 요구에 영향을 주는 역할로, 이화의대 교육 시스템에 이를 잘 담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업무 평가 개선 및 형성평가, TBL 등 구체적인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이화의대 최고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교내·외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여, 우리 의대 내부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본교, 의료원, 동창회, 지역사회 산업체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우수 의료 및 의과학 연구를 주축으로 구축된 이화의 네트워크를 국제 의학 분야 네트워크로 더욱 확장 시킬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이화의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학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은 학생들에게는 의학 최고 배움의 전당이 되고, 교수님들에게는 의학 최고 연구의 장이 되며, 동문들에게는 의학 최고 자존심이 될 수 있게 '이화의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를 위해 달려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의대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 번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화 가족 여러분께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장
하은희

이화의학교육센터(EMEC) 개소 1주년 기념



지난해 봄, 의과대학은 훌륭한 융·복합 의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 실천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발 및 실행하고,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의학교육 전문기구인 이화의학교육센터(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를 설립했다. 2022년 5월 10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 센터는 의과대학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교수법과 학습법, 학생 역량 개발에, 그리고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활동 등을 수행하며 이화 의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은 개소 1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일년간 교육세미나, UBT, 신입교수 워크숍, 문항개발 워크숍, TBL 워크숍, ESAC,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해왔다. 짧은 기간에 그 성과를 가능하는 것이 어렵고, 발전을 위한 시행착오, 고민과 시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의 아쉬움도 있지만, 새롭게 개선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간들이었다”며, “하은희 학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후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고의 의학 교육'을 수행하는 센터'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소속 정소미 특임교수는 지난 1년간 가장 힘주어 진행해 온,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학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교육의 당사자이자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지는 지에 대해 최대한 듣고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강의평가를 '과정별 학생 피드백'으로 변경하였고, 학년별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학기별로 정례화하여 의견을 듣고 개선 결과를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다 더 학생 가까이' 그리고 학생과 교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앞으로 이화 의학교육 운영 방안의 핵심과제인 EUMC LCT-QC(Ewha University Medical College, Learning/Curriculum/Teaching - Quality management/Counseling)를 중점으로 더 나은 교육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의학교육 전문기관, 최고의 의학 인재 육성의 산실로 우뚝 서고자 한다.

〈이화의학교육센터〉



졸업 30주년, 53주년 맞이한 동창들을 위한 ‘모교 방문의 날’



2023년 이화의대 졸업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가 6월 3일에 열렸다. 이대서울병원과 의과대학 투어를 시작으로, 학교 발전 방향 소개, 42기 동창소개 및 장학금과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보구녀관에서 기념촬영과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42기 동창들(정지아 동창 외 26명)과 하은희 의과대학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선영 동창회장과 임원진(김성희, 조지희 동창), 정성애 교무부학장 및 이정원, 윤혜전 기획부처장, 심기남 이화의의료원 사회공헌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임선영 동창회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아흔 네 명의 42기 동창들은 약 30%가 전국 대학병원 의료원에서 교수로 진출하였고, 유수의 기업과 공직은 물론 의료 선교사까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우리 사회에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하하며 42기 동창들에게 응원 기금을 전달했다.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여러 병원과 학교, 동창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42기 동창들이 만개한 꽃과 같은 이 시기를 의미 있게 계획해서 잘 보내기를 바란다”며, 이화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응원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그간 학장으로서 교수 및 학생 개별의 소프트웨어가 하모니를 이루어 이화의대라는 좋은 하드웨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동창들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이 있었다”며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42기 동창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27명의 동창들이 30년전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 시절에 대한 추억 등 각자의 소회를 전한 가운데, 올해 이화인으로 선정된 김예진 동창은 “졸업 후 30년만에 모교를 방문해 친구들과 같이 돌아보며, 다시금 이화가 얼마나 전통이 깊은 의과대학인지 새삼 감동이 밀려왔고, 앞으로 모교와 더 많은 협력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2일(화)에는 코로나로 인해 50주년 기념 방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19기 의과대학 동문(70년 졸)들이 방문했다. 졸업 53주년을 맞은 19기 동창들(지현숙 동창 외 9명)은 먼저 보구녀관에 모여 137년 전 여성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시작한 이화 의료원과 의과대학의 역사를 돌아보았으며, 이후 의학관 111호 대

회의실에서 하은희 학장의 의과대학 발전 방향 소개와 감사장 전달, 그리고 조금 늦은 기금 전달식까지 함께 했다. 졸업 후 50여 년 만의 방문으로 모교에 대한 그리움을 나눈 19기 동창들은 더욱더 이화 의대가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19기 동창회는 2020년에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으로 약 1억 4백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대학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23년 5월 9일(화)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Western Michigan University, 이하 WMU)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의학관(마곡)을 방문하여,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하은희 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정성철 연구부학장, 김관창 기획부장, 이정원 기획처장, 윤혜전 기획처장과 김인한 본교 국제교류처장이 함께 했으며, WMU 의과대학은 Michael E. Busha 교무부학장, Nancy Bjorklund 글로벌 교육부학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력 회의에 앞서 WMU 교수진들은 의학관 내 강의실, 임상실습실(EMSC) 외에 이대서울병원, 보구녀관을 둘러보며 136년간 이어오고 있는 이화 의료원의 설립 정신 및 발전 역사 등을 안내 받았다. 마곡의학관 대회의실에서 이어진 협력 회의는 하은희 학장의 환영사와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소개 및 양교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임상실습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학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향후 상호 협력 방안 논의들이 진행됐다. 향후 두 대학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학생 임상 실습 교류 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보관리부〉

본교, 이화의의료원·SCL과 ‘어린이환경건강클리닉(CHECK) 및 환경건강연구센터(IESEH)’ 설립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의의료원,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 공동주최한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 및 어린이환경건강클리닉 1주년 심포지엄이 3월 22일(수) 의과대학 3층 계림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정원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유경하 의료원장의 환영사와 이경률 SCL 총괄의료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IESEH)의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 공유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환경건강클리닉(CHECK)의 운영 현황 보고 및 미래 연구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환영사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중시하는 현 사회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환경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으며, 이대서울병원과 이화여대 의과대학, 서울의과학연구소가 함께하는 SCL 환경연구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계의 ESG경영의 모델로 제시될 것을 기대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경률 SCL 총관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태아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경영에 아주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최초의 여성의료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최초의 전문 검사 연구 기관인 SCL이 더 나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라고 의의를 더했다. 이화-SCL 환경연구센터(IESEH)의 어린이 연구 결과를 보고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장혜민 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소아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통해 나타난 48개의 질환 중 4개 질환(오로감염, 알러지성 비염, 급성중이염, 가와사키 질환)에 대해 심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화-SCL 환경연구센터(IESEH) 미래 연구 계획을 발표한 본교 환경의학교실 오종민 연구원은 “센터가 설립된 첫 해에는 어린이 환경건강과 소아연구로 시작하였다면, 앞으로 2,3차 년도에는 여성건강 연구뿐만 아니라 심혈관, 내분비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정성철 본교 의과학연구소장의 총평이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하은희 의과대학 학장의 향후 계획 발표 및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하은희 의과대학 학장은 폐회사로 통해 “지난 1년간의 환경건강 연구와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 운영 경험으로 앞으로는 연구, 교육, 클리닉을 고도화시켜, 어린이 환경건강연구 결과를 유해한 것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및 관리지침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2023학년도 1학기 ESAC 특강 개최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나군호 소장 초청 “Digital HealthCare 2023”



2023학년도 1학기 이삭 강좌가 계림홀에서 5월 22일에 'Digital HealthCare 2023'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강을 맡은 나군호 소장은 비노의학 전문 의이자 NAVER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특강은 약 150명의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하은희 의과대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편옥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케어, 장소의 제약이 없는 케어, 음성기술의 활용, 의료진 업무 효율화, 의료 데이터 통합 & 상호 호환,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총 6분야의 2023 디지털 헬스케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나군호 소장은 Generative AI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은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이자, 전 세계에 유일하게 Generative AI기술을 보유한 5개국 중 하나로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이 훨씬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군호 소장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인 GPT - 3.5 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챗봇 “ChatGPT”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네이버의 언어 모델 대비 3000배의 데이터로, 50년 치의 뉴스와 9년 치의 네이버 블로그 상당의 데이터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AI가 정제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앞으로 헬스케어 및 의료 시스템에서 “ChatGPT”가 미칠 영향력이 클 전망이다.

ESAC은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이화의대에서는 매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ESAC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의예과 2학년 홍서영 학생기자〉

제 2기 의과대학 학생홍보단 이의랑 발대식 개최



제 2기 의과대학 학생홍보단 발대식이 2023년 5월 12일 마곡 캠퍼스에서 열렸다. 작년 6월에 창단된 1기의 뒤를 이어 2기 학생홍보단으로 선발된 의예과 2학년 구분아, 안다솔, 윤지연, 허영진, 의예과 1학년 조윤주 5명의 학생은 ‘이화의대’와 ‘우리랑’을 합친 ‘이의랑’이라는 이름 아래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내·외로 이화의대의 홍보와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화의대 정보관리부장 이령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하은희 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박미혜 학생부학장, 심상신 정보관리차장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은희 학장은 의과대학의 캐치프레이즈인 ‘Future Ready Ewha Medicine’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의랑 2기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 준비된 이화의대를 알리리라 믿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어지는 임명장 및 배지 수여 이후 홍보단장인 구분아 학생은 “이화의대의 장점을 알리고 보완할 점들을 배우며 단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며 “시대를 앞서가는 이의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이화의대를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이의랑의 향후 행보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인스타그램(@ewhamedicine)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ewhamedicine)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의과대학 정보관리부〉

학생소식



2023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우수 논문 시상식



3월 29일 의과대학 학생 우수 논문 시상식이 열렸다. 우수 논문 지원 사업은 2023년을 시작으로, 매년 재학 기간 중 해외 과학인용색인 확장판(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등급에 준한 학술지에 게재자로 발표한 학생에게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며, 본 연구 활동비 지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심헌 전 동창회장(80년 졸,서울내과의원장)이 기부한 '의대우수논문상기금'으로 진행된다. 시상식에는 하은희 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정성철 연구부학장, 김관창 기획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의학과 4학년 강승지, 엄서현, 김세은, 최세솔에게 표창장과 우수 논문 지원금을 시상하였다. 강승지, 엄서현 학생은 British Medical Journal(BMJ) open지에 ‘Burden of neurological diseases in Asia from 1990 to 2019: a systematic analysis using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data’ 논문을, 김세은, 최세솔 학생은 Biomedicine지에 ‘Clinical Implications of Circulating Circular RNAs in Lung Cancer’ 논문을 게재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동아리 소식



의과대학 수공예품 동아리 H&M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4일 팔찌 150개를 제작하여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기부했다. H&M 기장 과나영 학생(의학과 2학년)은 “취미로만 즐기던 수공예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팔찌를 엮기 시작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팔찌를 제작했던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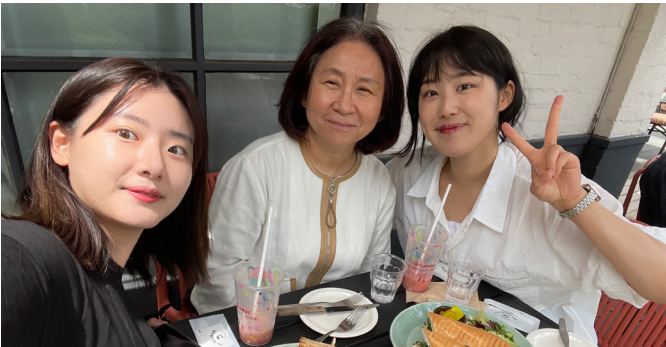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는 부원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고, 지역사회에 수공예품을 만들어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이화 의대 멘토-멘티, 설레임이 든든함으로

의과대학 멘토-멘티의 날은 매년 의과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인 Ewha Linkage Fellowship (ELF)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전문인으로 활동 중인 선배와 미래의 주인공인 후배들이 멘토와 멘티로 연계되어 만남을 갖고 서로 이끌어주며 성장 동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연을 맺는 행사이다.

작년 11월, '멘토-멘티의 날' 행사를 통해 인연을 맺은 10명의 멘토와 24명의 멘티들 중 정미라(32기) 멘토와 의학과 3학년 최유빈, 백승현 멘티의 만남을 담았다.



멘토님과 맺어진 값진 인연과 함께 하는 소중한 추억들

최유빈 작년 멘토-멘티의 날 행사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정미라 멘토님과 만남은 즐거운 이야기 보따리들이 쏟아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만남 때마다, 멘토님은 혹여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까 우려하시지만, 다양한 경험의 순간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매사 배움을 지속하고, 새로운 만남을 소중히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정미라 멘토님의 삶의 철학을 접할 때면, 불분명한 내 미래에 대해 조금씩 방향성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승현 '멘토-멘티의날' 행사로 만난 인연이 이토록 오래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이 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의대 생활, 의사 생활에서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배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다정함을 베풀어 주시는 멘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도 후배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선배이자 멘토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브라운의대 해외선택실습 다녀오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해외선택실습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올해는 의학과 4학년 김소은, 이예원 학생이 미국 브라운대 의대로 파견되어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습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돌아왔다. 두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선택실습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해외선택실습을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이) 의학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료가 행해지고 있는지, 의료 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A 김) 먼저, 해외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 실습을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군도 아무래도 다를 것이라 생각해서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Q 실습 학교로 미국 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이)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알고 싶었던 것과 더불어 언어적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병원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 김) 해외선택실습 대상 학교 리스트에 다양한 국가가 있었는데, 직접 환자 문진이 가능한 국가로 가고 싶었습니다. 실습은 영어로 진행하더라도 환자 문진은 해당 국가 언어가 가능해야 할 것 같아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Q 브라운 의대에서의 생활 중 이화여대와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A 공통) 브라운 의대에서의 실습은 단순 참관을 넘어서 수술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실습을 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수술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수술에 스크럽을 서고 심지어 수처와 타이를 저희에게 맡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수술 과정에서 학생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실습할 때보다 기간이 더 길어서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의대 실습 학생을 만났는데, 그들은 마이너 진료과 몇 개를 선택해서 여러 주씩 돈다고 들었습니다.

Q 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실습에서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A 공통) 실습을 가기 전에는 병원실습에만 집중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가서 제공받은 브라운대 학생증으로 브라운대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와 같은 타국의 실습 학생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겼습니다. 병원 실습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교 생활을 조금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Q 해외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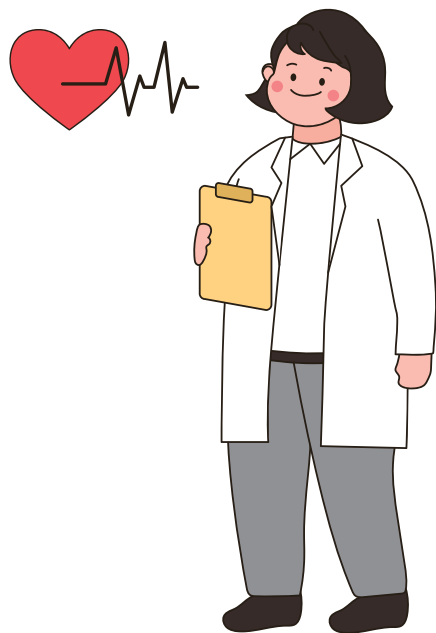
A 공통) 모든 과정이 도전이었습니다. 실습을 가기 위해 필요한 비자 신청을 포함한 각종 서류 문제와 숙소 문제, 토플 시험 등 부담스럽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준비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해외 실습을 가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해외 실습을 다녀오고 싶은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 있을까요?

A 이) 학교 차원에서의 연계된 해외 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외 학교에서도 외부 학생들을 받기며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분위기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우는 점도 중요하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한다면 더욱 풍부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김) 해외 실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도 어려운 실습을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준비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의예과 2학년 홍서영 학생기자〉



해외실습 교환학생을 만나다



2023년 해외 실습 교환 프로그램이 오랜만에 대면으로 실행되면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임상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해외교 교환 학생들인 미국 브라운 의과대학의 Daniel Cho, 태국 마히돌 대학의 Natnarun Prutthiarphakul, Khetsophon Poochipakorn(이하 Daniel, Natnarun, Khetsophon)을 만났다. 이들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진료과목의 임상 실습을 진행했다.

Q 한국으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A Daniel) 한국에서 태어나고 6살까지 살다가 미국 뉴저지로 이주했는데, 제 고향인 서울에서는 어떤 의학 공부를 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A Natnarun)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한국의 교육수준이 좋고 기술적 발전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시스템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A Khetsophon) 한국은 기술적 혁신이 많이 이뤄진 국가라고 생각했고, 여러 수술을 비롯해 높은 의료 수준을 가진 것으로 태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Q 여러 의과대학이 많은데,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Daniel) 제가 이곳으로 온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브라운대에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으로 교환학생들을 파견 해온 국제교류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화여대 출신이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A Natnarun, Khetsophon) 교환학생 협정교 중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이화여대였고, 관심있었던 진료과목 분야에 이화 의과대학이 유명해서 선택했습니다.

Q 재학중인 학교와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Daniel) 미국은 일반대학 4년, 의과대학 4년을 다닙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을 세 단계에 걸쳐서 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을 거친 후에 전공을 지원한다면, 미국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4년차에 전공을 지원합니다. 의과대학 3년차에 총 6개의 로테이션이 있는데 각 로테이션에서 최대 4명의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한국은 학생들이 환자의 경과를 전자 의무기록(EMR)을 통해서 지켜만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학생들이 배정받은 환자의 메디컬 플랜을 직접 짜야하며, 그 결과로 교수님이 성적을 부여합니다.한국은 수술 과정에서 학생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실습할 때보다 기간이 더 길어서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의대 실습 학생을 만났는데, 그들은 마이너 진료과 몇 개를 선택해서 여러 주씩 돈다고 들었습니다.

A Natnarun, Khetsophon) 우선 태국은 2년 pre-medical, 2년 clinical 과정이고, 태국 병원에서는 야간근무를 해야 합니다. Internal medicine에 간다면 전쟁에서도 일해야 합니다. 의과대학 6학년 학생들은 인턴처럼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회진을 돌 때 한 교수님만 따라다니지만 한국은 매일 다른 교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다릅니다. 태국에서는 의과대학 때부터 개별 학생마다 담당하는 환자가 배치되며, 매일 돌보고 리포트를 작성한 후 교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Q 한국의 병원에서 교육 받으면서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점이 있나요?

A Daniel) 제가 관심이 있는 마취통증의학은 미국과 비슷했지만,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매일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훨씬 빠르게 일한 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A Khetsophon) 태국 병원은 환자들로 정말 많이 붐비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 같습니다.

Q 임상실습과정 중 어려움은 없었나요?

A Daniel)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들과 이화여대 학생들이 매우 친절하게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도와줘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한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후배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나요?

A Natnarun, Khetsophon) 해외 실습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필요한 어학성적을 갖춰야 하고, 지원서에 기재할만한 본인의 스킬이나 활동 등을 만들어야 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특정 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그 전공과 관련한 유명한 질한 연구 등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 Daniel) 저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실습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외 실습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의사소통 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로 해외 실습을 가든지, 의과대학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운 대학과 이화여대의 소통 시스템을 통해 해외 임상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예과 2학년 홍서영 학생기자〉

학생소식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환경의학교실 이정실 박사과정생 인터뷰



환경의학교실 이정실 박사과정생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생물학, 의예과 과정을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임상 의학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호흡기 내과 전문의/중환자 의학 세부전문의로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로 근무, 런던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과정을 추가로 마친 후 현재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환경의학교실에서 기초전공의 및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환경과 관련된 호흡기 의료가기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정실 박사과정생과 융합형 의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된 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환경의학교실 박사과정에 입학한 이정실이라고 합니다. 저의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의 주제는 ‘미세먼지-알림 스마트 흡입기 케이스 개발’입니다. 천식 환자가 벤토린 흡입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보며 케이스가 있으면 흡입기 분실의 위험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고, IoT 스마트 케이스를 통해 외래 방문 이전까지의 흡입기 사용 횟수와 날짜, GPS 등을 기록하여 보다 정확한 천식 조절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적 유발요인을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로 박사 진학을 결정하면서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신 하은희 학장님과 많은 도움을 주신 안소현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고등학생 때부터 healthcare resource allocation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런던보건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만 배분하려고 하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자원은 정보의 편차와 외부효과, 공공재,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유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높은 효율을 달성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자 보건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Q 의료취약지 서산의료원으로서의 파견 중 환경 원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호흡기 증상 등을 목격하며 환경의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2019년 의료취약지인 서산으로 자원하여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진료교수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서산 스티렌모노머 공장 유증기 누출로 인해 마을 주민 2천여 명이 응급실과 외래로 내원하였고 인근에 있는 태안군 환경보건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의학교실과 함께 노출평가 설문지를 받고 환자분들의 소변을 채취하여 코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소방재난본부의 자문 회의에서 주민들의 임상적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해 코호트를 추적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과 건강 관련 정책 결정이 뒷받침되는 회의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 변수를 고려한 모델링과 연구를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제대로 된 방법론을 갖춘 환경의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초 의학이나 융합형 의과학자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저는 경제학 전공 배경과 최적의 자원 배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보건정책과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기초의학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과 전문의와 중환자 세부전문의로 진료를 보면서 의료현장에서 잘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unmet needs 환자들을 발견했고, 시스템을 간편하게 개선하여 의료진의 번아웃을 줄이면서도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융합형 의과학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기초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A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환경의학은 매우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진 빅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IoT로 얻을 수 있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학장님께 영감을 받아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재미있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을 어려운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관심있는 것을 즐기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risk-averse (위험을 회피하는 성격)이라면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당직이 없어 마음이 편하다는 것과 자기 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서, 차차 익숙해지며 또 후배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경험을 살아보겠습니다.

〈의학과 3학년 박서영 학생기자〉

기획기사 | 의료혁신과 여성벤처란?



디지털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손꼽히며, 의료계에도 다양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화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022년 2학기부터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2’ 수업을 창설하였다. 이화의대의 첫 창업교육과 향후 학생 연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과학연구소 안소현 연구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의과학연구소는 모든 의과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저는 기초 세미나를 주최하고, 창업 수업 이외에도 의공학자로서 의료 영상 AI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X선 영상 관련 진단/예측 AI 등을 연구하는 것 외에도 새로 개설된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과목의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Q 신규 개설된 과목이자, 미래 의과학자를 위한 창업실습 과목인 ‘의료혁신과 여성벤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의료혁신과여성벤처 과목은 ‘의료혁신과여성벤처 I’ 과 ‘의료혁신과여성벤처 II’ 로 구분됩니다. ‘의료혁신과여성벤처 I’ 은 의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창업 이론 수업입니다. 특히, 지난 수업에서는 시작장어가 있는 환자들에게 소리로 신호를 바꾸어 전달해주는 아이템인 ‘Barrier free’ 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료혁신과여성벤처 II’ 는 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 출신인 여성창업가들의 창업 동기와 성장과정을 접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를 받는지 생생히 알 수 있는 선택실습 과목입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웰트’, X선 장비를 주로 개발하는 ‘레메디’, 메타버스 MOU협약을 맺은 ‘델토이드’ 그리고 게임회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의료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 중인 ‘서지컬 마인드’ 등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Q 2023년 3월 16일 델토이드와 메타버스 의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메타버스 공간의 활용이 의료 교육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A 이번 업무협약(MOU)은 ‘의료혁신과여성벤처 II’ 를 수강한 의학과 4학년 김미산, 황유빈 학생의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로 만들어진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학장님, 보직교수님들이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TBL 강의실과 스터디룸, 프로젝트실 등 다양한 연구공간과 수업공간들을 실제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기획하고 설계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의예과 과목인 ‘공감과표현’을 통해 메타버스 안에서 환자와 의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실제 의료 교육에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화의대에서 선도적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지하 2

층 의료아카데미에서는 환자에게 요관을 넣거나 채혈을 하는 것을 VR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 의대 교육으로 확장한다면 OSCE나 기타 술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학도이면서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변화하는 의료계에서 뛰어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 임상에서 정확히 기술에 대해 알고 접근하지 않더라도, 혹은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다 보면, 자연스레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이나 AI 모두 지식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예과 시절에 코딩이나, 연구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의과학자로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의의료원 교수님들께서도 의과학연구소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며 융합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성애 교수님, 최아름 교수님과 내시경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학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의학 연구주제를 설명해 주신 덕분에 초반에 연구를 시작하기가 수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핵의학과와 PET-CET의 tumor분포를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핵의학과 윤혜전 교수님, 외과 권형주 교수님께서도 data collection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덕분에 이번에 창의도전 과제에 선정이 되는 등 활발하게 융합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훌륭한 임상 의사/의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사고와 태도로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 및 학회 등에 방향을 이용하여 참석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기부스토리

(주)에프앤가이드, '의과대학 장학기금' 1억 5천만원 기부



본교는 (주)에프앤가이드로부터 'FnGuide 장학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화여대는 2월 8일(수) 본교 총장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어 감사를 표했다. (주)에프앤가이드는 상장 기업의 주식·채권·펀드에 대한 성과평가나 지분 관계 등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기부는 (주)에프앤가이드가 이대서울병원의 지역기업이자 병원 고객으로 인연이 닿아 성사된 것으로 본교 의과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FnGuide 장학금'은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김은미 총장을 비롯해 신경식 대외부총장, 하은희 의과대학장, 정성에 의과대학 학부학장, 김관창 의과대학기획부장, 이혜선 전 대외협력처장, 최남경 대외협력처부처장이 참석하여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김은미 총장은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의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이 에프앤가이드와 이화의 첫 인연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주)에프앤가이드의 김군호 대표이사는 “명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과대학 및 이대서울병원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훌륭한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제 1회 Ewha-FnGuide 우수인재 장학금 수여식



제 1회 Ewha-FnGuide 우수인재 장학금 수여식이 6월 29일 이화여대 의과대학 마곡의학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 능력이 우수한 대학원생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장차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명을 선정하여 매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학원 수료 전까지 지원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하은희 의과대학장, 정성에 교무부학장, 박미혜 학생부학장, 안영호 학생처장, 김수인 학생처장, (주)에프앤가이드 김군호 대표이사, 박재철 상무이사, 이정용 재무팀장, 이동산 경영혁신팀장이 참석하여 제 1회 Ewha-FnGuide 우수인재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화여자대학 일반대학원 환경의학교실 이정실 박사과정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현재 의료계에서 의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정실 박사과정생이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의사 과학자로서의 롤모델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본인의 연구를 완성시킨 후 다음 후학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에프앤가이드 김군호 대표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많은 에프앤가이드의 직원들이 이대서울병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정실 박사과정생도 에프앤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크게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실 박사과정생은 미래연구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 계획은 융복합적 연구, 교육, 의료기기 개발이며,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자로서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 예방을 위한 스마트 흡입기 케이스 개발’을 연구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실 학생은 “에프앤가이드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후배 양성에 열심히 힘쓰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예과 2학년 홍서영 학생기자>

'처음'을 밀거름으로 꽃피울 이화



함정희 의과대학 명예교수(의학 69졸)이 본교 의과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후배와 제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함 교수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발전기금, 의료원발전기금, 피부과학교실 발전기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모교 사랑, 제자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1970년대 의과대학은 물론 '여자 교수'가 귀했던 시절 함정희 교수는 본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제1호로 피부과 전공 교수로 임용되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이화 졸업생의 타이틀을 가지고 처음 교수로서의 발을 내딛으며 함 교수는 '처음인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 “이화의료원의 시초인 보구녀관, 그 곳에서 처음 탄생한 여의사 김점동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화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듣고 마음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보구녀관과 김점동 선생님이 갖는 남다른 의미는 우리나라 여성 의료와 여성 의료 교육을 위한 '첫' 기관이자 '첫' 열매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또한 1호 피부과 전공 교수로서 2호, 3호와 그 이후를 위한 밀거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 교수의 이러한 생각과 헌신을 발판 삼아 올해 60주년을 맞게 된 본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은 현재 5명의 여자 교수가 재직하며 피부과를 포함한 이화의대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교수이자 기부자로서 의과대학과 의료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함 교수는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모교를 찾아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했다. 마침 함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하은희 교수(의학 87졸)가 의과대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인연이 더욱 특별했다.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며 보태는 저의 작은 기부를 통해 의료계에 더 많은 이화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언론에 비친 동문소식



임선영 동문, 이화의대 제24대 동창회장 취임



임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수석부회장(82년 졸 임선영산부인과의원)이 제 24대 신임 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화의대 동창회는 지난 3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신임 수석부회장에는 피상순 전 안산시의회회장(84년졸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선임됐다.

임선영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교인 이화의대가 최고의 의대가 되고 이화의료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동반해 전 동창이 자부심을 갖고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4700여 동문들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동문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24대 동창회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동창회에 지속적인 큰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임선영 회장은 이화의대 동창회 수석부회장, 한국어자의사회 공보·제정·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감사, 대한의사협회 지식향상위원회 위원·의료정책연구소 편집위원·의사수필가협회 정보통신 이사·서부지검 의료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동문,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소속 안정신 교수(외과)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안정신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관계를 에스트로겐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규명'한 결과를 발표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안정신 교수는 “의료진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환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환자분들의 이차암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정신 교수는 유럽종양학회 주최 컨퍼런스에서 해외 연구자에게 주는 트래블 그랜트(Travel Grant), 대한종양외과학회 우수구연상, 이화 목동 Young Doctor Award, 국제종양외과학회 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의학신문>

이진경 동문,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 원장 임명



이진경 동문이 5월 19일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경 신임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전문의를 시작으로 원자력의학원 전략기획실장, 국가방사선혈액자원은행장, 비상진료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현재 진단유전학회 국제이사로 활동 중이며, UN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 부의장, 보건의료연구

구원 평가위원회위원,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진경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60년간 방사선의학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원동력을 발굴, 의학원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첨단 의과학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첨단 기술이 도전적으로 구현되는 '과학기술특성화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학신문>

이화의대동창회, 자립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임선영)가 최근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이사장 김현수),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관장 황혜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역사회 자립청소년 통합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탈가정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한 보호, 탈가정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소년 위한 의료 정보제공 및 의료봉사, 자립준비청소년 통합적 자립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임선영 회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립 청소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및 탈가정청소년들이 의료적 혜택과 후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

신임교원 인터뷰



홍소희 교수
미생물학교실

홍소희 교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면역학 분야를 전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신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홍소희 교수를 만나 신임교원으로 활동한 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일에 임용되어 미생물학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홍소희입니다. 전공분야는 면역학으로 그 중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식면역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백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이화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꿈꿔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건 상 교수가 되거나 국내의 대형 연구기관에서 연구 P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데, 이화여대에서 감염 및 백신 분야의 교수를 채용한다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면역학 실험은 식물이나 미생물 연구와는 달리 주로 동물실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대 서울병원이 동물실험을 위한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어렸을 때 유전공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한 이후로 과학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의학 분야에 관심도 있었지만 수술 등 책임감이 너무 큰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 의학 외적이면서도 동시에 의학과 가장 밀접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질환 및 인류의 삶의 질 등이 결과적으로 면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면역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면역학의 경우 모든 조건이 똑같아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특성이 재미있었습니다. 면역학을 공부하던 중 미생물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미생물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Q 미생물학 중에서도 현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A 현재 관심 있는 분야는 백신입니다. 좋은 백신이란 적절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으로, 면역원성이 너무 낮으면 방어 효능이 떨어지고 면역원성이 너무 높으면 과도한 면역반응에 의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로서의 목표는 면역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동물 실험을 통해 적정 수준의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을 만들고, 그에 대한 면역원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군과 어린이, 노인, 면역저하자 등 다양한 질환 모델에서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면

역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신만으로는 natural infection 수준으로 원하는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면역증강제를 개발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이화에 오신 소감이나 오고 나서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A 여대에서의 경험은 처음인데, 다른 환경에 비해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직 분위기 자체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있고 학교 분위기 전체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타 학교의 경우 임용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조금이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화여대의 경우 교원에 대한 차별이 적은 것 같아 이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Q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야 하는 산,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사회생활 등을 하다 보면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학생 때 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적으로도 함께 지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과 3학년 박서영 학생기자〉



퇴임교원 인터뷰



이미애 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이미애 교수는 의과대학 31회 졸업생으로, 이대 동대문 병원에서 수련의,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 과정을 거쳤다. 여러 국내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교실 과장, 미국의 암센터와 대학에서 연수 받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했던 이 교수는 1995년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로 발령받고 29년간 이화에 몸담아 왔다. 이 교수는 임상미생물, 감염관리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며 다양한 학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진단검사의학교실 이미애 교수를 만나, 퇴임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정년 교실을 떠나게 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9년을 근무하고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말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의국 선후배 교수님들과 의국원들이 도와주시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Q 그동안 이화와 함께 한 추억과 애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화 의대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 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선 교수로서는 한 지도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교수 장학금 등을 받게 해 준 이후로 멘토가 되어 현재까지 부모님과도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정년퇴임 기념으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훌륭한 학생이 졸업하여 전문의로 활동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낍니다. 전공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화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들이 전공의 시험이나 전문의 시험에 수석을 했고, 수련 후에 교수 또는 과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낍니다.

Q 교수님께서 의과대학 졸업 이후,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시고 있고,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 학회와 다기관 연구를 활발히 이끌어가셨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졸업 후 제가 진단검사의학과 전공했을 때는 이화의대 진단검사의학과에 임상미생물을 전공하신 분이 없고 다른 교수님들께서 안 하시는 분야라 하게 되었는데, 불모지에서 혼자 연구,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며 겸손하게 활동하다 보니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염의 원인균을 진단하는 학문인 임상미생물을 전공하면 대한진단검사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나 대한감염학회 등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염관리과, 감염관리실장, 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장 등감염관리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올해 퇴임을 하시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을까요? 퇴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여태까지 해왔던 운동이나 취미 생활은 계속할 예정이고, reference laboratory의 학술원장으로 직장을 옮겨서 전문의, 의사, 교수로서 37 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봉사하고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은 저희 후배들에게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선배님인데요,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새로운 지식을 항상 습득하세요.

제 전공의 시절에는 분자진단이라는 개념과 분야는 없었는데, KAIST 연수 후 분자 진단을 셋업하였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도입을 위해 미국 MD Anderson 단기연수, H. pylori 내성기전에 관해 Baylor 의대 교환 교수로 연수하였고, 다양한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며 새로운 지식도 습득했습니다. 의사는 평생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익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과가 아니더라도 연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취미 생활과 운동을 하세요.

전문의가 된 후 골프를 배워 이대 목동 교수님들, 학회 동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운동도 할 수 있어 좋았고, 10년 정도의 선후배와 같이 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10여년간 필라테스를 하면서 우정을 다지며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취미생활을 하면 재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습니다.

3. 좋은 친구와 교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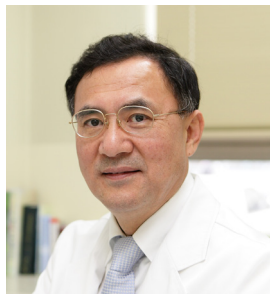
저에게는 의과대학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31회 의대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 이화의대에 6명이 교수로 있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멘토가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목장이라는 신앙의 가족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교수 성경공부모임과 교수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바쁜 와중에도 성경 공부도 하고 인생도 나눕니다. 이화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동문과 의국 식구들도 항상 의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고 바빠서 많이 돌보아 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인 남편과 딸도 항상 용기를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4.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중년이 된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학생들은 지금부터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특히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이때 믿음을 갖고 믿음의 친구와 동역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퇴임교원 인터뷰



정구용 교수
외과학교실

졌다. 2023년 8월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외과학교실 정구용 교수와 퇴임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정든 교실을 떠나게 되시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수련의 시절부터 세어 보면 햇수로 40년을 보낸 교실입니다. 마침표 찍기가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 같은 부사들만 떠오릅니다. 길든 짧은 우리 교실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떠오르고 긴 역사 속에 계속 성장하는 교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Q 오랜 기간 본교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셨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동안 보람찼던 경험이나 아쉬웠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장기이식 분야는 이식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상 분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1995년 우리 병원에서 처음 신장 이식 수술 한 환자를 비록 수년 전에 재이식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행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학생, 전공의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외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을 보며 지내는 것도 물론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현실 상황이 몹시 아쉽습니다.

Q 올해 8월 말에 퇴임을 하시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을까요? 퇴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지 궁금합니다.

A 무언가를 나누는 게 늘 좋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서혜부 탈장 수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게 주었고 덕분에 이 분야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알게 된 것들을 후배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의 분야에는 가지고 있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누려면 가진 게 있어야 하므로, 나눌 수 있는 무엇이든 배워보고자 합니다.

Q 2016년 명의로 소개된 인터뷰에서 교수님의 말씀 중 “장기이식은 대가 없는 순수한 나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인상이 깊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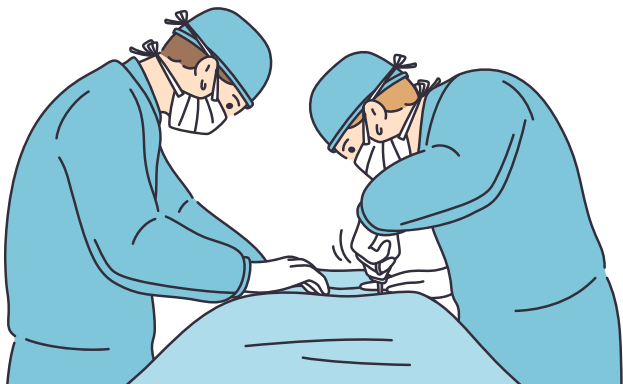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기이식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노력이 궁금합니다.

A “대가 없는 순수한 나눔”이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꺼냈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 없는”이라는 말 속에서의 “대가”란 “물질적인 대가”만을 이야기한 듯합니다. 즉, 인간은 “물질적인 대가”만이 아니라 “정신, 심리적인 대가”도 하나의 가치로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개인적 가치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듯하고 실제로 환자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통계 데이터로 장기 기증하시는 분의 손실과 희생을 말해주고 이 손실과 희생이 그 개인이나 가족에게 가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손실과 희생이 기증자 개인과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7년 전에 비해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전 생물계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현상이 인간 문화를 특징짓는 현상이 되려면 “물질적인 대가”라는 것을 뛰어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직 장기 기증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이식은 긍정적 되먹임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갈수록 이식수술도 더욱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Q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자, 교수님의 후배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다”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이리저리 잘 인용하는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의사를 키우는 것은 팔 할이 환자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화를 내실 거 같은데, 잉태를 시킨 것은 선생님과 선배 의사들이지만 진정한 의사로 성장시키는 것은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배태 기간이 긴 것처럼, 모든 첨단과학의 산물을 응용해야 하는 의사의 배태 기간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제대로 걷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 혼자 큰 거 같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향기 짙은 꽃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언론에 비친 교수소식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 연구팀, 美생식학회장상 수상

‘임신 중 식이제한 또는 고지방식이, 자손 영향 확인 연구’ 성과 인정



의과대학 의과학과 김수민 박사과정생 (뒷줄 왼쪽에서 4번째)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연구팀이 지난 3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미국 생식학회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해 SRI President's Presenter's Award를 수상했다.

SRI President's Presenter's Award는 미국 생식학회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팀에게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김영주 교수 연구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김수민 박사 과정생의 연구 'Effect of Maternal Diet in Pregnancy on the Gut Microbial Composition and Hepatic Metabolism in Rat Offspring'의 주제발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해당 연구는 '태아프로그래밍' 가설에 기반한 동물모델을 구축하고, 모체와 수컷 자손의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 변화를 관찰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아프로그래밍은 '모체가 임신 중 부적절한 식이 및 환경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가설로 인간의 평생 건강은 태아 때 엄마로부터 받은 영양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10년 간 태아프로그래밍 연구를 수행한 김영주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 중 식이제한 또는 고지방식을 진행한 경우, 그 자손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변화하고, 단쇄 지방산(Short Chain Fatty Acids)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간에서 지질생성에 관여하는 일부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했다. 최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단쇄 지방산 또한 건강과 질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김영주 교수 연구팀은 임신 중 모성의 부적절한 식단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및 간 내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쳐 초기에 대사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날 발표를 한 김수민 연구원(이화여대 의과대학 박사 과정)은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본 수상을 계기로 장 내 미생물과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보다 깊이 연구한다면 더욱 값진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 교수는 "태아프로그래밍 관련 연구를 통해 뜻 깊은 상을 수상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태아프로그래밍 가설 기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한 소아 비만 및 대사 질환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학신문〉

치과학교실 방은경 교수, 구강 보건 향상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치과학교실 방은경 교수(이대목동병원, 사진 오른쪽)가 3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치학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방은경 교수는 주 연구분야인 치주조직의 재생 및 임플란트 임상분야에서 다수의 국내 KCI 및 SCI(E)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 질환에 특화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근무하면서 여성 질환과 치주 질환의 연관성, 폐경기 여성의 치주 질환에

대해 지속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은경 교수가 치의학 학술 연구를 통해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방은경 교수는 "여성 질환에 특화된 병원의 특성상 많은 여성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임신과 출산, 폐경 등의 여성으로서 특이성을 확인했고 다른 치주 질환과 연계성 등을 연구한 결과,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더불어 여성 치과 의사 및 위생사, 기공사 등의 교육을 통해 여성 치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신문〉

내과학교실 조영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내과학교실(알레르기내과) 조영주 교수가 지난 5월 9일 열린 '2023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알레르기 질환자를 조기에 선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주 교수는 2020년부터 한국천식알레르기학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조영주 교수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사업이 순항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학신문〉

언론에 비친 교수소식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한수 교수,
내과학교실 강덕희 교수
‘2023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한수 교수
‘난치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세포치료제 개발’

이화의료원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김한수 교수와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가 '2023년도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5월 9일 밝혔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 연계를 통한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먼저 '난치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세포치료제의 개발' 과제로 '재생의료 융합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된 김한수 교수는 향후 3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약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한수 교수는 진료현장에서 갑상선 및 부갑상선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으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편도췌장세포 분리 및 배양', '췌장세포로부터 부갑상선호르몬 분비세포 분화 방법', '부갑상선 기능저하 동물모델 제작' 등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한수 교수는 "해당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의인성 부갑상선 기능저하 환자의 약물 대체를 통해 연간 12억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또한 부갑상선호르몬 대량생산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강덕희 교수 연구팀은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법 발굴 및 효과 검증' 과제로 사업에 선정되며 2023년 4월부터 향후 3년간 15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강덕희 교수팀의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체 줄기세포의 복강내 투여는 복막투석 동물모델에서 복막 기능을 호전시키고 복막섬유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복막투석액에서 분리한 줄기세포 또는 편도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복막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 효과를 검증하고 실제 투석환자에게 적용가능한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 유래 물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기능 보존을 통한 생존율의 향상, 의료비 절감 및 재생의료 관련 기술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덕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복막투석 환자에서 편도줄기세포의 효과에 관한 세계 최초의 연구로 환자가 투석 후 버리게되는 투석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

고 복막기능 저하 환자에게 자가 줄기세포 치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복막투석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화의료원〉

신경과학교실 송태진 교수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보건산업진흥원과제 선정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2023년도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수요기반형) 보건산업진흥원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송태진 교수는 뇌졸중 후 구음장애 및 언어장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진단 치료기기 개발을 주제로 4년간 총 1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뇌졸중 환자에서 구음장애, 언어장애는 흔한 합병증이나 현재까지 표준화된 진단, 치료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송태진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의 뇌졸중의 전주기(급성-아급성-만성)에서의 구음장애 및 언어장애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했다. 본 과제에는 송태진 교수를 비롯하여 신경과 박무석, 장윤경, 신동우, 강민경, 이형우 교수, 재활의학과 양서연, 이유경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송태진 교수팀은 최근 정보통신부의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개발과제에도 선정되는 등 신경계질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진단,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신임, 퇴임, 보직교수 명단



2023학년도 연구비 우수교원 선정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환경의학교실)	하은희	의학과(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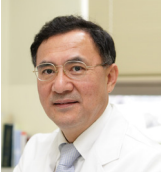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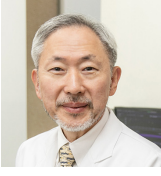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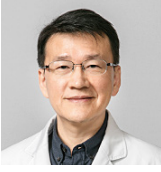
의과대학 이화행림우수연구자상 수상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분자유과학)	안영호	의학과(내과학교실)	박준범

신임교수 명단(2023.03.01)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내과학교실)	이민종	의학과(신경과학교실)	김지은
의학과(외과학교실)	우주현	의학과(안과학교실)	조수창

퇴임교수 명단

성 명	학 과	퇴직일
 서석호	의학과 (생리학교실)	2023.08.31
 정구용	의학과 (외과학교실)	2023.08.31
 이미애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교실)	2023.08.31
 박기덕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2023.08.31
 정우식	의학과 (비뇨의학교실)	2023.08.31

의과대학 보직교수 명단(2023.08.01)

보 직 명	성 명	소 속
학장/ 대학원장	하은희	환경의학
부학장(교무)/의과학과장/의학과장	우소연	미생물학
부학장(학생)	박미혜	산부인과학
부학장(연구)	양현종	기생충학
부학장(교육)/의학교육센터	편욱범	내과학
임상교무부장	이경은	내과학
기획부장	김관창	흉부외과학
정보관리부장/EMSC센터장	권형주	외과학
의예과장	최윤희	생리학
의과학연구소장	안영호	분자유과학
교무차장	정최경희	환경의학
교무차장	이민종	내과학
임상교무차장	김민혜	내과학
임상교무차장	정수연	이비인후과학
의학교육차장	태정현	내과학
의학교육차장	이희성	외과학
학생차장	신정아	해부학
학생차장	김수인	정신건강의학
기획차장	이정원	소아과학
기획차장	윤혜전	핵의학
연구차장	홍소희	미생물학
연구차장	양서연	재활의학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의과학연구소 실험동물실장	류정화	내과학
정보관리차장	양나래	신경외과학
정보관리차장	홍경숙	외과학
의예과 차장	공경애	예방의학
자체평가연구위원회총괄위원장 M융합캠퍼스추진위원장	권복규	의학교육학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23.01.01~2023.06.30.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 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임선영 (의학 82졸)	50,000,000원	윙환극 (의학 73졸)	3,000,000원
심우찬	10,000,000원	함정희 (의학과 명예교수)	10,000,000원

2. 백분익일의나눔장학금 (2023.01.01. ~ 2023.06.30. 기준)

의과대학 동창들이 각자 수입의 백분의 일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 자는 취지로 모금한 장학금입니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매해 연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같이 후원한 장학금 약 1억 2000만원을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전 달하고 있습니다.

박설희(의학 10졸), 강예성(의학 93졸),고은희(의학 78졸), 권계숙(의학 90졸), 권정미(의학 99졸), 길지나(이화가족), 김경효(의학 83졸), 김광주(의학 84졸), 김금미(의학 89졸), 김문정(의학 95졸), 김병선(의학 84졸), 김보경(의학 92졸), 김성희(의학과 87졸), 김수경(의학 93졸), 김연신(의학 82졸), 김영선(의학 94졸), 김영주(의학 84졸), 김예미(의학과 교수), 김예진(의학 93졸), 김우선(의학 90졸), 김윤희(의학 78졸), 김자영(의학 84졸), 김정숙(의학 83졸), 김종원(의학 79졸), 김지영(의학 89졸), 김지호(의학 89졸), 김진희(의학 61졸), 김태경(의학 84졸), 김태연(의학 05졸), 김태임(의학 74졸), 김한울(의학 08졸), 김현영(의학 78졸), 김현화(의학 81졸), 김혜옥(의학 84졸), 김홍희(의학 88졸), 김하숙(의학 71졸), 남은미(의학과 교수), 맹신숙(의학 92졸), 문경원(의학 02졸), 문규원(이화가족), 문용자(의학 61졸), 문인숙(의학 78졸), 민정혜(의학 93졸), 박경숙(의학 86졸), 박경화(의학 84졸), 박규희(의학 90졸), 박미연(의학 89졸), 박미향(의학 90졸), 박미혜(의학과 교수), 박보영(의학과 교수), 박선옥(의학 74졸), 박성희(의학 82졸), 박승희(의학 89졸), 박연희(의학 93졸), 박은미(의학과 교수), 박은애(의학과 교수), 박원애(의학 90졸), 박재옥(의학 75졸), 박정선(의학 78졸), 박준범(의학과 교수), 박진(의학과 09졸), 박혜숙(의학과 교수), 박혜영(의학과 교수), 박혜영(의학 89졸), 방문혜(의학 84졸), 배기선(의학 99졸), 배순희(의학 75졸), 배현애(법학과 교수), 백세연(의학 93졸), 백승연(의학과 명예교수), 백승희(의학 82졸), 백혜숙(의학 89졸), 백희정(의학과 교수), 서동혜(의학 95졸), 서란(의학 82졸), 서시정(의전원 13졸), 서의정(의전원 15졸), 서정완(의학과 교수), 서정은(의학 09졸), 서한나(의학 10졸), 성시열(의학 81졸), 손현주(의학 84졸), 손희정(의학 89졸), 송선희(의학 77졸), 송현주(의학 00졸), 신수아(의학 93졸), 신정아(의학과 교수), 신혜원(의학 78졸), 신화자(의학 78졸), 심소연(의학과 교수), 심현(의학 80졸), 안영호(의학과 교수), 안혜선(의학 84졸), 양나래(의학 07졸), 양미혜(의학 82졸), 오양자(의학 65졸), 오혜숙(의학 78졸), 우명숙(의학 71졸), 우복희(의학과 명예교수), 우소연(의학과 교수), 우재희(의학 07졸), 원혜성(의학 90졸), 유경아(의학 97졸), 유경하(의학과 교수), 유금혜(의학 00졸), 유동원(의학 84졸), 유박영(의학 74졸), 유시현(의학 95졸), 유신애(의학 69졸), 유채섭(의학 84졸), 윤석완(의학 76졸), 윤명인(의학 78졸), 윤석애(의학 71졸), 윤소윤(의학 07졸), 윤수진(의학 90졸), 윤혜원(의학 80졸), 이경숙(의학 82졸), 이국희(의학 89졸), 이귀용(의학과 명예교수), 이남경(의학 89졸), 이남희(의학 79졸), 이령아(의학과 교수), 이명희(의학 90졸), 이미애(의학과 교수), 이순남(의학과 명예교수), 이순재(의학 75졸), 이승희(의학 84졸), 이연주(의학 90졸), 이영은(의학 90졸), 이예경(의학 82졸), 이용주(의학 77졸), 이윤하(의학 91졸), 이은엽(의학 75졸), 이재옥(의학 79졸), 이재옥(의학 76졸), 이재현(의학 80졸), 이정엽(의학 82졸), 이정원(의학과 교수), 이종민(의학 80졸), 이지희(의학과 교수), 이지희(의학 90졸), 이진숙(의학 78졸), 이향운(의학 과 교수), 이현주(의학과 박사 10졸), 이훈주(의학 07졸), 임석아(의학 91졸), 임 선영(의학 82졸), 임원정(의학과 교수), 장은경(의학 90졸), 장혜숙(의학 75졸),

전영미(의학 82졸), 전해진(의학 05졸), 정미경(의학 84졸), 정민경(의학과 교수), 정성애(의학과 교수), 정성철(의학과 교수), 정수경(의학 97졸), 정연정(의학 90졸), 정윤희(의학 74졸), 정은숙(의학 84졸), 정은주(의학 90졸), 정인숙(의학 77졸), 정주혜(의학 97졸), 정지아(의학 93졸), 정혜선(의학과 교수), 정호인(의학 90졸), 조기영(의학 02졸), 조지희(의학 88졸), 조혜경(의학 04졸), 주문희(의학 70졸), 주미련(의학 74졸), 주재분(의학 77졸), 차순자(의학 60졸), 채설애(의학 96졸), 최옥경(의학 90졸), 최원주(의학 79졸), 최윤희(의학과 교수), 최은경(의학 89졸), 최익숙(의학 77졸), 최지하(의학과 교수), 최현주(의학 87졸), 최혜영(의학과 교수), 피상순(의학 84졸), 하은희(의학과 교수), 한경원(의학 84졸), 한기정(의학 89졸), 한승혜(의학 96졸), 한지윤(의학 75졸), 허금희(의학 89졸), 허양임(의학 05졸), 허정원(의학과 교수), 홍기숙(의학과 명예교수), 황은미(의학 01졸)

3.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3.01.01~2023.06.30. 기준 약정일순)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 기금	북미주외대동창회 연구지원기금	이화국제재단	3,151,420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이찬우 (이대목동병원)	2,000,000
	의학교육혁신기금	편옥범 (순환기내과 교수)	4,000,000
		강양급(의학93졸)	1,000,000
		강예성(의학93졸)	1,000,000
		김도민(의학93졸)	1,000,000
		김수경(의학93졸)	3,000,000
		김영숙(의학94졸)	1,000,000
		김예진(의학93졸)	1,000,000
		김인주(의학93졸)	1,000,000
		남승연(의학93졸)	500,000
		남은미(의학과교수)	4,200,000
		민정하(의학93졸)	1,000,000
		민정혜(의학93졸)	4,200,000
		박기령(의학93졸)	1,000,000
		박미영(의학93졸)	1,000,000
		박민수(의학93졸)	1,000,000
		박사영(의학93졸)	1,000,000
		박수경(의학93졸)	1,000,000
		박신애(의학93졸)	1,000,000
		박유경(의학93졸)	1,000,000
	의학교육혁신기금	박은미(의학93졸)	1,000,000
		백세연(의학93졸)	1,000,000
		백은주(의학93졸)	1,000,000
		서지연(의학93졸)	1,000,000
		손혜영(의학93졸)	1,000,000
		신수아(의학93졸)	1,000,000
		양경애(의학93졸)	1,000,000
		양정인(의학94졸)	1,000,000
		오은지(의학93졸)	1,000,000
		오진희(의학93졸)	1,000,000
		유진아(의학93졸)	1,000,000
		윤원희(의학93졸)	1,000,000
		이기문(의학93졸)	1,000,000
		이기정(의학93졸)	1,000,000
		이민희(의학93졸)	1,000,000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 기금	의학교육혁신기금	박은미(의학93졸)	1,000,000
		백세연(의학93졸)	1,000,000
		백은주(의학93졸)	1,000,000
		서지연(의학93졸)	1,000,000
		손혜영(의학93졸)	1,000,000
		신수아(의학93졸)	1,000,000
		양경애(의학93졸)	1,000,000
		양정인(의학94졸)	1,000,000
		오은지(의학93졸)	1,000,000
		오진희(의학93졸)	1,000,000
		유진아(의학93졸)	1,000,000
		윤원희(의학93졸)	1,000,000
		이기문(의학93졸)	1,000,000
		이기정(의학93졸)	1,000,000
		이민희(의학93졸)	1,000,000
	의학교육혁신기금	이선민(의학93졸)	1,000,000
		이수연(의학93졸)	1,000,000
		이승희(의학93졸)	1,000,000
		이시내(의학93졸)	1,000,000
		이유미(의학93졸)	1,000,000
		이윤영(의학93졸)	3,000,000
		이향운(의학과교수)	2,000,000
		이혜영(의학93졸)	2,000,000
		임수미(의학과교수)	2,000,000
		정연실(의학93졸)	1,000,000
		정은희(의학93졸)	1,000,000
		정지애(의학93졸)	3,000,000
		정지향(의학과교수)	2,000,000
		정혜전(의학94졸)	500,000
		조소연(의학93졸)	3,000,000
		조윤숙(의학93졸)	1,000,000
		조은희(의학93졸)	1,000,000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 기금	의학교육혁신기금	조혜진(의학93졸)	1,000,000
		최문혜(의학93졸)	1,000,000
		최문희(의학93졸)	1,000,000
		하경아(의학93졸)	1,000,000
		하지영(의학93졸)	2,100,000
		한성희(의학93졸)	1,000,000
		한수정(의학94졸)	1,500,000
		황은경(의학93졸)	3,000,000
		황정혜(의학93졸)	1,000,000
장학 기금	Drs. Moonja Chung & Chanjong Park Medical Fund	정문자 (Moonja Chung Park) (의학 66졸)	6,302,840
	FnGuide장학금	(주)에프앤가이드	150,000,000
	Heeyul Lee Cho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12,605,680
	International Ministries with Women, Children & Youth Scholarship	United Women in Faith	34,408,839
	John D.Yun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3,151,420
	Joulja Juliet Kim Song Scholarship	Joulja Juliet Kim Song(의학 65졸)	12,605,680
	Jung Ae Kim Memorial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3,151,420
	강영빈장학금	윤영희(의학 70졸)	12,889,547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 (의학과 교수)	3,900,000
	연희장학금	주정신건강 의학과의원	6,000,000
	의과대학대학원장학금	심현(의학 80졸)	12,000,000
		일산서울내과의원	4,000,000
		류정하	6,000,000
		류시하	6,000,000
	의과대학장학금	김은진(의학 80졸)	600,000
	이울진료회장학금	김경우	3,000,000
	조성래장학금	조성래	3,000,000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여러분의 후원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세계적인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기틀이 될 '연구기금'과 우수 여성 의과학자 및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줄 '장학기금', 첨단 의학교육환경을 위한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선물 및 카드 증정
- 모바일 뉴스레터/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 이화소식/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이화여대 의대 발전기금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닥터로빈(5%), 교보문고(5%), 구내안경점(10~20%), 뚜레쥬르(10%), 카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2927,3969 **Fax** [02]392-3473 **Homepage** <http://giving.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13, 601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권형주(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양나래(정보관리차장), 홍경숙(정보관리차장), 김지현(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권나현(의학과 3학년), 최유빈(의학과 3학년), 박서영(의학과 3학년), 홍서영(의예과 2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지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Tel:** 02.6986.6007

